“재난 속 코미디 같은 생존방식 담았죠”

8월 개봉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병헌

대지진 후 아파트 주민 모습 그려
박서준·김선영 등 동료 배우들
이병헌 주연에 무조건 출연 결심
“극장서 봐야 스케일·음향에 압도”

배우 이병헌

“이 작품을 재난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재난이 벌어진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고 소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지를 담은 ‘휴먼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엄태화 감독이 연출한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주연 배우 이병헌은 21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이 영화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다.

오는 8월 개봉하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황궁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김숭늉 작가의 웹툰 ‘유쾌한 왕따’ 2부 ‘유쾌한 이웃’이 원작이다.

엄 감독은 “사람들이 가장 친숙한 공간에서 극한 상황에 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각색했다”며 “등장인물 중 나와 비슷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헌은 외부인들로부터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새로운 주민 대표 영탁을 연기했다.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출연을 결심했다는 이병헌은 “황궁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아무리 단합해도 각자 생각과 성향, 개성은 다르다”며 “서로 분열하기도 하고 이기심과 잔인함의 끝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점이 (다른 재난 영화와) 차별화된 점”이라고 말했다.

박서준, 박보영, 김선영 등 다른 배우들은 이병헌이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작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박서준은 “워낙 이병헌 선배님의 팬이어서 꼭 작업해보고 싶었다”면서 “저에게 제안이 온 상황이 아니었는데, 먼저 제가 감독님에게 출연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어필했다”며 웃었다. 그는 재난 이후 가족을 지키는 것이 단 하나의 목표가 된 민성을 연기했다.

황궁아파트 부녀회장 금애 역의 김선영은 “언제 이병헌 선배님과 만날지 모르는 것 아니냐.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고 캐스팅 당시를 돌아봤다.

엄 감독은 “이병헌 씨를 캐스팅해서 극의 중심을 잡아주면 좋은 배우들이 (따라)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 “출연진이 모두 확정되고 촬영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며 미소 지었다.

박보영은 촬영장에서 이병헌의 연기를 보고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그는 “촬영장에서 배우들끼리 농담하다가 선배님이 갑자기 분노하는 연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순간 눈을 갈아 끼운 줄 알았다. 잠깐 사이에 변하는 눈빛을 보고 배우란 저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민성의 아내이자 간호사 명화 역을 소화했다.

엄 감독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이들 배우가 그리는 캐릭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황궁아파트라는 배경이었다고 강조했다.

영화 속 황궁아파트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새로 지은 세트장이다. 폭격을 맞은 듯 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바닥을 뚫고 박힌 자동차가 이곳저곳에 있는 등 사실적으로 표현됐다.

엄 감독은 “황궁아파트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새로 짓자고 마음먹었다”며 “내부 모습도 여기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짐작할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병헌은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규모가 크고 압도되는 장면이나 음향이 많다. 극장에서 보는 것과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라며 관객들에게 영화관을 찾아 작품을 봐주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장우, 8세 연하 배우 조혜원과 열애

소속사 “진지한 만남”

이장우(왼쪽)와 조혜원

배우 이장우(37)가 8세 연하 배우 조혜원(29)과 열애 중이다.

이장우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전 한 매체를 통해 제기된 두 배우의 열애설을 인정하며 “두 사람은 작품을 통해 만나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중 연인 사이로 발전해 예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혜원 소속사 에스더블유엠피도 “두 사람이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열애를 인정했다.

2006년 드라마 ‘90일, 사랑할 시간’으로 데뷔한 이장우는 KBS ‘수상한 삼형제’(2009), MBC ‘태희혜교지현이’(2009), KBS ‘웃어라 동해야’(2010)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2009년에는 그룹 트웬티포세븐 소속 가수로 싱글앨범을 내고 활동하기도 했다.

조혜원은 2016년 영화 ‘혼숨’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마인’(2021), ‘군검사 도베르만’(2022),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퀸메이커’(2023) 등에 출연한 신인이다. /연합뉴스

코믹 수사로 ‘힙하게’ 뭉쳤다

JTBC 드라마 ‘힙하게’ 8월 방송

한지민 이민기 수호

배우 한지민, 이민기, 그룹 엑소 수호가 오는 8월 중 처음 방송되는 코믹 수사 활극 ‘힙하게’에서 호흡을 맞춘다.

JTBC는 “새 토일드라마 ‘힙하게’를 오는 8월 12일 처음 방송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힙하게’는 범죄 없는 청정 농촌 마을 무진을 배경으로 한다. 우연히 생긴 사이코메트리 능력으로 동물과 사람의 과거를 볼 수 있게 된 수의사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복귀를 위해 그녀의 능력이 필요한 엘리트 형사가 펼치는 코믹 수사 활극이다.

순박하지만 어쩐지 수상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잘한 생활밀착형 사건들을 해결해가던 둘은 연쇄살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공조를 하게 된다.

한지민은 어쩌다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을 얻게 된 수의사 봉예분을 연기한다. 정도 많고 오지랖도 넓은 그는 자신의 능력치를 실험하던 중 새로 온 열혈 형사 문장열과 엮여 그와 함께 사건들을 해결하게 된다.

문장열 역에는 이민기가 나선다. 광수대에서 농촌 마을 무진으로 좌천된 그는 열정과 욕망이 넘쳐 사건 수사에 대한 집착이 남다르다.

수호는 천사 같은 외모와 성품을 가진 김선우 역을 맡는다. 친절하지만 좀처럼 생각을 읽을 수 없는 인물이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김석윤 감독, 이남규 작가가 4년 만에 다시 뭉쳤다. /연합뉴스

BTS ‘테이크 투’ 글로벌 200 1위

美 빌보드 싱글 핫 100 48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이달 9일 발표한 데뷔 10주년 기념 신곡 ‘테이크 투’(Take Two)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 48위와 ‘글로벌 200’ 1위에 각각 올랐다.

21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테이크 투’는 뮤직비디오나 방송 활동이 없었음에도 ‘핫 100’에 무난히 진입했다.

또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1위로 직행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 ‘다이너마이트’(Dynamite),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 ‘버터’(Butter),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에 이어 통산 일곱 번째 ‘글로벌 200’ 1위 곡을 보유하게 됐다.

방탄소년단은 또한 지난 2020년 ‘글로벌 200’ 차트가 신설된 이래 매해 신곡으로 이 차트 1위에 오른 첫 번째 가수가 됐다.

‘테이크 투’는 지난해 시작된 멤버들의 입대로 잠시 단체 활동에 ‘쉼표’를 찍은 가운데 팀의 두 번째 장(章)을 주제로 삼은 노래다. 팬들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담아냈다. 이 곡은 9~15일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 6천20만회, 다운로드 6만4천회를 각각 기록했다고 빌보드는 전했다. /연합뉴스